이안의 Media In Buddha ㉙ 영화 〈서울의 봄〉



▶한줄 요약
12.12 군사 쿠데타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탐욕과 폭력의 인과에 대해 집중한다.

진정한 봄은 역사의 청산 후 온다



2주 만에 5백만 명 동원한 〈서울의 봄〉
12.12 군사 쿠데타 역사적 실화 영화화
역사적 사실보다 탐욕의 인연 고리 집중
성공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무리들은
지지 거부한 불교에 총칼로 법난 일으켜
'10.27 법난' 등 청산 못한 업보만 남아

태양계 지구별은 해가 뜨고 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맞춰 살아가는 뭇 생명들과는 좀 다른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다. 중심이 되는 태양을 기준으로 보자면 뜨고 지는 태양과 지구별 사이에는 약속된 연이 있어서, 날과 달, 계절이 바뀌고, 그 바뀌는 법칙을 헤아려 그 안에서 세상일을 새기는 일을 역사라고 하는 중생들이 바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떤 날일시는 돌고돌아 다시 오는 해와 달과 지구 사이의 좌표에서 벗어나 그 날짜 자체만으로 고정되는 특별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 지표들은 중생들의 과보로 보자면 업을 지은 순간들일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 지표로 남게 되는 날짜들은 사람들 각자의 별업이 아니라 그 날짜를 지표로 아는 자들 모두의 공업일 것이다.

〈서울의 봄〉의 영어 제목은 '12.12: THE DAY' 다. '12월 12일, 그날' 이라고만 해도 누구나 아는 날짜이기에. 그런데 참 이상도 하지. 이 날짜를 살아서 지나온 사람들이 몇 천만을 헤아리는데, 이 날짜를 기점으로 나라가 송두리째 바뀌었는데, 45년이 되도록 아직 이날 지어진 '업' 의 인과 연을 제대로 들여다본 영화가 지금껏 없었다니.

이 날짜를 콕 집어 작정하고 무리를 지어 축배를 들고, 군림하고,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그 부와 권력을 대대손손 불리고 이어갈 체제를 세우느라 나라를 나라의 뿌리인 헌법과 제도를 자기들 무리를 위하도록 시대로 만들었다.

조선왕조 500년이 일제강점으로 무너진 식민지에서 독립해 헌법에 바탕을 둔 공화국이라는 제도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지 겨우 30년 남짓에 무려 다섯 번째 틀 갈이, '제 5공화국' . 첫 번째 틀이 4.19 혁명으로, 두 번째 틀이 5.16 군사 쿠데타로, 그 쿠데타 세력을 뒷받침하던 무리들이 일으킨 12.12 쿠데타까지, 매번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민주공화국답게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어떤 미래든 매번 군인들의 총과 군홧발로 짓뭉개지던 시대, '군사독재' 시대였다. 그게 군인들만의 업이었을까?

그 시대 내내 숨 죽여 살던 사람들이나 갇히고, 쫓기고, 사라지고, 맞고, 고문 당하고, 죽임 당하던 사람들 모두가 얽힌 업이 쌓이고 쌓이는 군인 정치 시대는 정말 몸서리치게 긴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21세기인 지금 되돌아보면 첫 공화국에서 6.25 거쳐 12.12까지 31년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보다 더 짧은데.

이미 이 영화를 본 관객이 수가 500만 명을 넘었다. 5000만 국민 10명에 한 사람은 이 영화를 보았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이 확실하다. 지금 〈서울의 봄〉을 보는 관객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겪은 적이 없는 세대들이다. 그런 세대들에게도 〈서울의 봄〉은 오락으로 보고 즐길 흥미진진한 여흥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라며 폭력적으로 정권을 잡은 정치군인들이 천수를 누리며 재산을 불리는 동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고 편들어 주며 권력을 나눠 가진 사법부가 지난 시대를 죄업으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자산으로 삼은 현실을 감당하며 살게 된 세대들이기에.

김성수 감독은 추론하고 비유할 것도 없이 누가 누구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인물들에게 굳이 전두광(황정민 역)이니 노태건(박해준 역)이니 하는 극중 이름을 따로 붙여 등장시킨다. 그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풀리지 않은 업이기에. 그 업의 무게는 엔딩 크레딧이 오를 때, 상영관의 불이 켜지고 관객들이 나서고 있을 때, 엔딩곡 '전선을 간다' 가 흐를 때 실제 사진과 인물들, 그들이 누린 지위들을 드러내며 스크린에 비춰진다.

〈서울의 봄〉은 12.12 쿠데타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남산의 부장들〉(우민호 감독, 2019년)이나 〈그때 그 사람들〉(임상수 감독, 2005년)이 다룬 10.26까지의 역사는 감독 자신의 해석으로 따로 풀어내지 않아도 될 사건으로 두고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보안사 사령관인 전두광이 자기 무리에게 툭툭 던지는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전두광과 그 무리들이 만들어내는 탐욕과 폭력의 인연을 드러낸다.

악인의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한 별도의 서사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그 악의 무리들이 올라탄 탐욕과 폭력의 바탕인 '하나회' 가 도드라지게 한다. 군대 안의 사조직인 '하나회' 는 그러니까 악업의 공업을 도모하는 인연의 올가미다.

〈서울의 봄〉에서 김성수 감독은 선과 악을 균형있게 다루려는 캐릭터 드라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태신 장군(정우성 역)에게 주어지는 개별 서사의 여지를 전두광, 노태건과 같은 이들에게는 따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떤 핑계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영화적 빗장이다. 그들이 도모하는 군사반란에 개별적 이해는 필요하지 않다는, 강력한 구심점인 전두광부터 최고의 짝패인 노태건이나, 모든 상황을 말아먹는 국방장관, 휘둘리고 휩쓸리는 하나회들에게는 딱 사건에서 보이는 모습과 행위, 그 결과 말고는 우리가 알아야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시각화되지 않았던 군인 정치의 본질을 자세하게 재현한다. 군사 쿠데타라는 것이 군사 작전이라는 것을, 군사 작전은 병사들을 도구 삼아 작전 대상을 타격해서 승리를 목표로 하는 행위이고, 그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차지한 권력집단에게 있다는 것을, 그 권력을 차지하는 데 법과 제도보다 욕망과 인연이 앞서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드러낸다.

대신 이 영화는 그 사건 당시 군대 안에서 군사 반란을 막으려고 했던 군인들, 목숨을 잃거나 다쳤던 군인들을 상황 안에서 입체적으로 살려낸다. 누가 죽인 것인지, 죽기까지의 상황을 장소별, 시간대별로 하나하나 재현해낸다. 그 이름이 실명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이 죽음의 장면들은 〈서울의 봄〉이 희생된 군인들에게 보내는 거창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담은 영화적 애도일 것이다.

서울을 향해 진입을 시도하는 탱크와 장갑차,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복판으로 포신을 겨누는 야포 부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무리와 그렇지 않은 지휘관 사이에서 어쩌면 서울 한복판이 내전에 휩쓸릴 수도 있었을 일촉즉발의 상황을 스펙터클하고 긴장감 넘치게 재현해는 김성수 감독과 이모개 촬영감독의 화면은 그 일이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누르고 있는 현실을 소환해내는 시각적 충격을 자아낸다.

이날 이후 불교계도 군부에 의해 법난을 겪게 되었다. 군사반란 이듬해인 1980년 10월 27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전국 사찰에 군인,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불교계 정화' 를 명분으로 전국 사찰과 암자 5341곳에 군 · 경찰을 투입해 법당을 짓밟고 승려 1800여 명을 불법 연행해 고문과 폭행, 거짓 진술 강요 등을 했다. '10 · 27 법난' 은 쿠데타를 주도한 신군부 세력이 불교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5공화국 정권 출범을 앞두고 벌인 폭거였다.

1980년 4월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권력의 간섭을 배제한 자율적인 종단 운영과 종단의 자체 정화를 천명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은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 를 지지했던 '전한국불교회' 와 '대한불교총연합회' 를 탈퇴하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 성명을 거부했다. '한국불교의 최대 치욕 사건' 으로 불리는 '10 · 27 법난' 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반적인 해석이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불교계 비리에 대해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아무런 정화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아 자력으로는 도저히 갱생의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부득이 사회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 것이며, 그 목적은 불교 내부의 분규 종식, 부정축재와 비리행위자 색출 및 종단 재산관리와 해외활동을 둘러싼 사기행위자와 국위손상자 색출에 있다고 발표했다.

월주 스님은 이때 계엄사 요원들에 의해 수모를 당한 끝에 총무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했고 법난 당시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였던 지선 스님은 새벽에 보안대 지하실에 끌려가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취조를 받았다. 심지어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온갖 폭력에 시달리게 된 승려들도 있었다.

이렇게 한국불교 사상 최대의 수치라는 법난을 일으켰던 전두환은 이후 제대로 처벌을 받는 대신 백담사에 머물며 업을 대신할 여지를 벌면서, 움켜쥔 재산과 권력을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성공했다. 천수를 누리고 죽기까지 그 일가는 그때 차지한 권력을 바탕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 업에 짓눌린 손자가 대중에게 죄를 고하고 마약에 손대면서까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기까지 제대로 사법적 처벌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진정한 봄은 이 업을 청산하지 않고는 맞을 수 없으리라.

〈영화평론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소개합니다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산수유열매,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복령, 옥수수수염, 천문동, 맥문동, 감초뿌리줄기, 뽕나무뿌리껍질, 창출뿌리줄기, 작약, 황기, 칡뿌리,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측백나무, 자소엽, 서목태, 복분자, 삼백초, 참당귀,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솔잎, 녹차잎,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당신은 저승사자 죽음앞에 당할자? 일체종교가 무슨 소용 있나요!?
당신 조상만이 염라국에 진 빚을 갚는 육경신루진통 대법회

당신은 민족조상부모없이 어디서 왔는가. 남에나라 종교와 신앙에 얼과 혼이 빠져 제 부모조상 모르고 염라국에 진 빚과 이생에 올 때 양손에 가지고 온 진 빚을 모르니 이법은 하늘 땅에 감추워진 비법이므로 자기가 부처인 화두를 모르기에 죽음의 사자 앞에 당신은 무엇으로 일체종교가 무슨 소용있나요 부처님께서도 평생해도 고행만하니 하루신선께서 고타마 불명을 주워 보리수나무 밑에가서 육경신 6년되는 루진통새벽 광명의 빛을 보는 순간 견성성불하신 법이므로 평생해서도 목탁염불하두철야정진 무슨 수행으로는 현관과 자성의 문을 보지도 찾지도 못하는 것은 염라국의 33만원진 빚과 이생에 올 때 양손에 가지고 온 진 빚을 갚지 않았기에 제석천의 신장인 육갑제왕신장들에 의하여 평생해도 찾지 못하는 마음심자인 근본 12연법인 자신의 화두를 모르기에 병마와 수마에 죽는 것이다.

※ 이제 당신의 마지막 기회인 100년에 한번드는 사람 몸 받는 육경신루진통기도가 2023년 12월 27일 밤해시 입제 28일 밤해시에 해제하는 날이며 이날은 28일 낮 정오시에 당신에 천문과 현관을 열어 염라국과 이생에 올 때 진 빚과 업연과 각종 질병을 빚으로 업장을 소멸 몸에 귀신 잡신 빙의신 해탈못한영가 이생에 명부를 지우고 천부에 명부를 올리는 진광대도통법인 것이다.

※ 이 법은 만금을 주더라도 참된 스승 못난나는 비밀법이며 눈과 귀가 있는자 비인도전이니라 당신에 참스승인 것이다. 지구촌만종만교있다한들 불교 · 천주교 · 힌두교 · 이슬람교 · 알하신 · 기독교 · 무속만신 대종교 · 증산교 · 도교 · 천도교와 과학 · 의학 · 한방양방. 도사 의사 목사 신부 스님 무속만신 명예 재산자들이 죽엄을 막지못해 병들이 죽는 것은 염라국과 이생에 올 때 진 빚을 갚지 않고 윤리 탈선과 남에 나라 종교에 넋과 혼이 빠져 개와 짐승들에 귀신놀음으로 철회맞고 죽는 천지개벽, 종교개벽, 질병개벽에 살 수 있는 법은 오직 금년육격신루진통으로 일류조상부모상 잘 모시고 건강장수거 부장자되는 천하대도법인 것이다.

상담전화 010-9292-3110 / 010-9718-4449 (총무)

천지공사육경신천문도총회 총본산 환성천용진인태일대사 합장